

건강 칼럼

아토피, 겨울철 가려움증 심해 면역치료 중요

건조한 겨울이 되면서 아토피 피부부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장벽기능, 면역체계 이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해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가려움증 심해지는데 계속 긁으면 피부가 점차 두꺼워지면서 진물이 나거나 이차적인 세균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는 습하고 더운 여름철에 악화가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토피는 유형에 따라 여름에 더 심해지거나 혹은 겨울에 더 심해지기도 한다.

보통 전신의 피부가 붉어지고 피부에 열감이 느껴지는 열성 아토피의 경우에는 외부 열 자극이 악화 요인이 되어 여름철에 심해지는 경



하우람

성기현의원 부산센텀점 원장

우가 많다.

그러나 건조한 추운 겨울철에는 땀샘 피부와 땀이 잘 나지 않는 건성 아토피인 경우 증상이 악화된다.

이는 열의 과잉에 의해 유발되는 열성아토피와는 달리 면역력 저하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열과 독소가 정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증상이 겨울에 더 심해진다면 단순히 피부 증상의 완화만을 위한 치료가 아닌 저하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은 특정한 한 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닌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판단한다.

피부 면역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안정한 피부의 면역을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토피 피부염의 한의학적 치료는 한약과 약침 치료, 침 치료를 병행해 피부와 체내의 면역

력을 조절하고 동시에 피부에 물린 열독을 제거한다.

한약 치료는 개인의 체질 개선을 통해 피부의 면역력과 재생력을 높여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변이 세포를 정상 세포 조직으로 재생하는 근본 치료를 한다.

한의학적 치료는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는 일시적으로 증상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체계를 차단해 주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

아토피 피부염은 염증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가려움만 억제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독자제언

청소년 성범죄 사각지대 '랜덤채팅 앱' 대책 시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편리함과 다양성이 많아졌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 성범죄의 위협성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 중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랜덤채팅 앱은 가출청소년들의 성매매 연결 창구가 되는 등 성범죄의 온상지가 되어버려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랜덤채팅 앱 규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부분의 랜덤채팅 앱이 어떤 인증 절차도 없이 가입이 가능해 성별과 나이 등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악용해 음란 사진을 요구하거나,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채팅 앱에 무방비 노출되고, 심지어 일부는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사이버 '포주' 노릇을 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도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경로 유형 중 모바일 채팅 앱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채팅 앱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하는데, 앱 자체가 성매매와 같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청소년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 채팅 앱은 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후 범죄자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입력을 하도록 하고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랜덤채팅 범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법이 미비한 지금으로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볼 수 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보이지 않는 가상의 공간에서 행동일지라도 나중에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 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하누카 축제



9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게이트웨이 오브 인디아에서 유대인 모임 회원들이 빛의 축일인 하누카 축일을 기념해 메노라 촛대에 점화하고 있다.

사설

7조원 예산 시대에 지역 발전 매진을

드디어 7조원 예산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보다 4643억 원이 많은 7조3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전북도가 예산의 양보다도 질을 언급할 때만해도 7조원 예산 확보가 그렇게도 어렵나 라고 염려를 했는데 그게 기우였음이 기분 좋게 입증됐다. 전북도가 예산의 질을 언급한 그대로 새만금 SOC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1조1186 억 원을 확보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 년간 예산 7조원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한 만큼 이제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만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매진 발언은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정서가 다르다. 지역 발전 매진과 관련해 주문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국내 보수 언론들을 통한 언론 플레이로도 모자라 미국 언론까지 동원해 막장 드라마를 보았던 수도권의 악의를 상기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주 제3 금융도시 지정에 대해 부산상공회의소가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도

상기해야 한다. 전북도는 계속해서 실력발휘를 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저번에 화이부동의 정신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전북도가 이번에 보여준 예산 7조원 돌파는 도민의 열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도민들은 자금 열기가 대단하다.

전북도는 도민의 열기에 고무되어야 한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뒤처진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공조하고 협력하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배정된 예산을 온전히 지역 발전에 소비하는 왕성한 식욕을 보여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도지사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주는 도민들의 주문은 한결 같다. 계속해서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번에 7조원 예산 시대 개막을 도민과 함께 기뻐하는 바이다.

1인 총소득 전국 최하위 벗어나야

지난 대선패배부터 기운이 뚝 떨어졌다. 갈수록 추워지는 겨울을 맞아 전북도의 경제적 분발이 요청되고 있다. 도민 1인당 총소득이 전국 꼴찌라는 보도가 해마다 이때쯤이면 반복됐었는데 올해는 어떤지 궁금하다.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요구와 함께 지역 경제의 악화를 염려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확인해보거나 전국 최하위 수준일 거라는 짐작이 있음에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는 도민의 말에 따라 지역 발전 가능성을 위한 목록을 보여야겠다. 발전 현안들 중에는 구체적인 작업이 없이 세월만 보낸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북도에게 뚜렷한 행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슨 사업이고 추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지역 발전 사업의 맨 앞장에 있는 새만금만 해도 그렇다.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으면 생각이 생각날 정도이다. 그리고 전북 경제와 새만금 사업과의 관계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미미하다.

전북도는 지금 지역의 일자리 형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터이다. 팬텀은 일자리가 엄청 증발했는데 뭐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기대하지 않은 일용직 같은 일자리는 양산되고 있으니 고용 쇼크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도민 개개인의 소득을 구체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전북도는 우리 지역이 웰빙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공표해왔다. 그런데 그 공표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웰빙 고장이 아니냐는 소득이 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도록 1인당 총소득 전국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러므로 힘을 쏟는 주먹적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 현안을 챙기고 있다 해도 그게 소득과 관련해 별로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가치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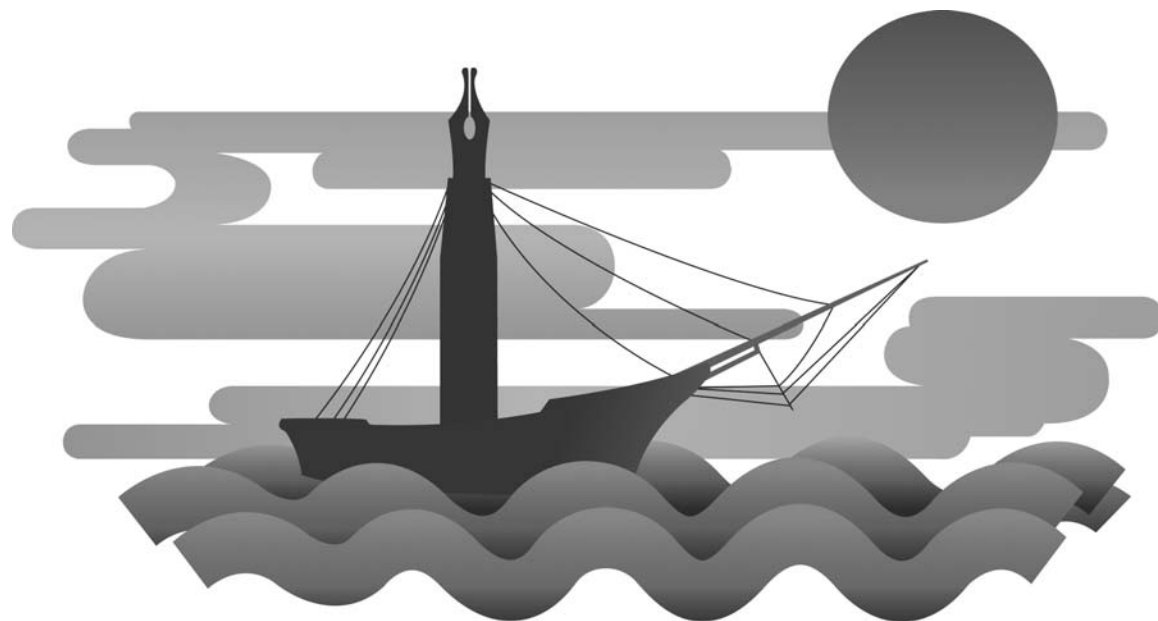
전북도는 도민들을 상대로 많은 약속을 하였다. 그 약속들에 대한 기대가 서글픈 희망이 되게 해서 는 결코 안 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